

大學 作文 教材의 실태와 개선 방향

朴 鍾 哲

(崇實大 國語國文學科)

.....
 大學生들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고 論理的인 글로써 表現하게 하여 주는 敎養國語는 현재 그 교육과정, 교수 내용, 교육 방법, 교재 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점들을 克服하기 위하여 作文敎育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작은 교재의 質的 改善 도모와 교과과정에 精確한 문장 작성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1. 敎養國語 敎育의 現實

한국 대학의 현실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같기도 하다. 民主化에 대한 열망은 大學外的 문제들뿐만 아니라 大學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까지 비판과 반성의 反響을 넓혀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체 반성 중 과거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의 하나가 大學에서의 敎養敎育에 대한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大學人 모두는 現行 敎養敎育課程의 非敎育的인 要素들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한편,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敎養敎育課程 속에 포함되어 있는 敎養國語도 그다지 순탄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않다. 대부분의 大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敎養國語에 대한 학점 수와 시간 수의 축소를 진

행하였고, 심지어 敎養國語의 無用論까지 제기하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大學人의 無敎養을 탓하기에 앞서 敎養國語 담당자들의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2. 作文敎育 強化의 필요성

학문이란 필경 학문하는 사람이 타인들의 텍스트를 독해하는 일과 자신의 텍스트를 창조하는 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지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교양국어가 학문의 학문이란 것은 자명해진다. 한 기술체의 체계를 이해하는 일, 그리고 그 체계에 의존하여 메시지를 수용하는 일,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일 등이 언어적 작업이라면, 그 작업의 시작과 마무리가 교양국어 시간에 이룩될 것 또한 자명한 일임은 모든 大學人들이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敎養國語 교육의 효과를 극히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大學人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敎養國語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敎養國語의 교육과정, 즉 敎授 內容, 교육 방법, 교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임은 자못 분명해진다. 이러한 회의적인 비판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大學生들의 작문 실력에 대한 것이다. “大學에 다니면서 레포트 하나 올바르게 작성하는 학생이 드물다”거나 혹은 학생들이 작성한 글에 대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질책은 학생들의 작문 실력, 나아가서 교양국어에 대한 극단적인 회의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敎養國語 과정은 作文이라는 하나의 영역만으로 고집할 수는 없다. 大學에서의 敎養國語 교육도 국어교육의 일반 목표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리고 ‘말(글)을 자료로 하여 만들어 내는 모든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이해’를 조화롭게 편성해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 중 가장 소홀히 다루어진 영역이 ‘쓰기’와 관련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사지선다형’에만 익숙해 있는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글로써 표현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모든 국어교육의 실질적인 최종의 도달점은 作文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구체적으로 펜을 들어 글을 짓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모든 의사 전달 행위는 글을 짓는 행위이다. 글을 짓는 행위는 결국 삶 그 자체이며, 살아가려는 의지이며, 자아의 독자적이고 개성 있는 경험을 보편화하여 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은 ‘읽기’와 ‘듣기’에 의한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에만 주력하여 왔으며, 大學에서의 ‘교양국어’ 또한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래 많은 大學에서 敎養國語를 작문교육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은 물론이다. 이제 大學生들이 실제로 작성했던 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 보고, 그것을 몇몇 대학의 작문 교재와 연관해서 작문 교재의 미비점과 그 개선점을 찾아 보도록 한다.

한편의 글 혹은 텍스트가 하나의 단어나 문장(sentence)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한 편의 텍스트는 적게는 몇 개의 문장에서 많게는 몇 백, 몇 천 개의 문장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일단정지’, ‘출입금지’ 같은 도로 표지판들은 거의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고 있으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와 같은 속담이나, ‘얼굴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는다’와 같은 금언들은 대개가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글로 쓰여진 텍스트들은 많은 문장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즉 몇 개의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단락을 형성하고, 그러한 단락들이 모여서 한 편의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텍스트는 몇(십) 개의 단락을 그 직접 구성 성분(immediate constituents)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며, 하나의 단락은 다시 몇(십)개의 문장들을 그 직접 구성 성분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하나의 문단을 형성하는 문장들은 논리성을 바탕으로 질서 있는 연속체를 이루게 되며, 이렇게 이루어진 문단들은 상호간에 긴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연속체를 이루면서 한 편의 텍스트로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편의 텍스트란 결국 논리성과 긴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문장들의 연속체임에 다름 아니다. 이때 텍스트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문장은 흔히 형태소 또는 단어들의 질서 있는 연속체라 정의되고 있다. 즉 화자 혹은 필자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어휘들을 선택하고, 선택한 어휘들을 일정한 문법 규칙에 어긋남이 없이 배열한 것이 문장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한 편의 텍스트란 결국 문장으로 시작해서 문장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작문교육에서 아주 제외되었거나, 제외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부분이 올바른 문장의 작성법에 대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대학생들이 작성한 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오류들 중의 대부분이 한 문장의 문법성과

관계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① 그렇게 어리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내가 어
느새 지성을 먹는 대학생이 되었다.
② 다시 인생에 대해 생각해 하고 삶의 고민
을 던져 주는 교수님들의 추파는 잊지 못할
것이다.

위의 예문들은 단어의 선택이 적절하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①에서 '지성'이란 목적어에 '먹
는'이란 서술어가 연결된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
스럽다. 학생들끼리 주고 받는 농담에서라면 혹
모르겠으나 강의의 일부로 부과된 글에서 사용
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따라서 '먹는'은
'논하는' 정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②에서의
'추파'는 학생들의 어휘력을 단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는 예이다. '추파'란 어휘의 의미를 학
생이 알고 있었다면 '인생에 대해 생각해 하고,
삶의 고민을 던져 주는 교수님'의 말씀이나 행동
을 절대로 '추파'란 어휘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③ 헤겔의 역사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동력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인 ㉠반대자
의 투쟁과 ㉡반대자의 일치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③의 문장은 ㉠과 ㉡의 뜻이 명확하지 못해서
文章 전체의 意味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과 ㉡의 격조사가 잘못되었기 때
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를 ㉠ '반대자에 투쟁
하는 사상'과 ㉡ '반대자와 동조하는 사상' 정
도로 수정한다면 그 뜻은 자못 분명해질 것이다.

- ④ ㉢어느 순간에 ㉣때때로 ㉤문득 ㉥뜻하지
않게 ㉦아름처럼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

文章 ④에는 수식어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 문장의 흐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그
意味의 파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수식 요소가 중복되어 하나의 體言이나 또는 語
句를 수식하거나 한정하게 되면 정확한 지시 관
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우기 ㉣의
'때때로', ㉤의 '문득', ㉥의 '뜻하지 않게'는

거의 동일한 意味를 傳達하고 있어서 같은 말을
쓸데없이 중언부언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文章의 作威를 정확한 文章의 사용이
라는 면에서보다 아름다운 문장의 사용이라는
면에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일 것이다.

- ⑤ 그는 바둑을 사랑한다. ㉧오묘한 생의 진리
를 체험하며 한 수 한 수에 온 심혈을 다 쏟
아 놓느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차
원의 세계를 여행하는 ㉩희열을 만끽한다.
바둑을 인생과 비유하는 데는 조금의 무리
도 없다. ㉪고달픈 인생 항로와 너무도 일치
한다.

⑤는 적절한 단어들 사용되지 못하고, 정도
이상으로 과장된 단어나 또 문맥에 비사실적인
단어들이 사용되었으므로 독자를 설득하는 데 실
패하고 있다. 우선 바둑을 두면서 ㉧ '오묘한 생
의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문제
터니와 '사차원의 세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
한 세계인지는 더욱 문제가 된다. 나아가서 문
장과 문장 사이의 연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에선 바둑을 두면서 느끼게 되는 '희열'
을 말하고 있고, 그러한 희열을 다음 문장에서
'인생'에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에선 ㉪ '고달픈 인생 항로'에 다시 비유하고 있
다. 그렇다면 '희열'과 '고달픈'은 같은 의미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논리의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속되는 문장에서조차 논리의 모순을
범하고 있다면, 문장들의 연속된 집합으로 이루
어지는 한 편의 텍스트에서 어떻게 논리적 통일
성을 유지할 수 있을런지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다.

위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들의 작문
실력은 하나의 문장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에
서조차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이러한 현상이 전체 대학생들 모두에게서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
겠으나,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은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그것은 그동안
몇 개의 대학에서 작문교육 시간을 통해 대학생
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글을 수정해 주면서 수합

한 공통의 문제점들을 학생들의 글에서 뽑은 실제의 예문들을 중심으로 논의한 몇몇 세미나에서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作文 教材의 현황과 그 문제점

이와 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학에서의 작문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작문교육을 위한 교재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물음은 현행 대학의 전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것은 전공 영역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겠으나 기본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의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전공 영역에 따른 전문적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양식을 확충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學에서의 作文 教育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않다. 본고에서는 作文 教材만을 대상으로 현행 大學에서의 作文 教育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作文 教材의 독립성 여부이다. 作文 教材가 독립되어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作文 教育 時間의 독립을 뜻할 수 있을 것이며, 作文 教材의 내용도 충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86년도 대학 평가시 敎養國語에 대한 평가 결과 나타난 자료에 의거하면, 作文 教材를 교양국어(독본) 교재와 분리하여 마련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 대학의 약 60%에 해당한다. 즉 평가가 가능했던 전국 109개 대학(교)에서 작문 교재를 독본 교재와 분리하여 마련하고 있는 대학은 66개교였으며, 교양국어(독본) 교재 속에 통합하여 마련하고 있는 대학이 43개교였다. 특히 통합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독본 위주에다가 作文 教育을 약간 포용하는 교과 구성이 70% 이상에 이르고 있고, 독본·작문의 병행 구성이나 작문 위주 독본 포용의 구성 비율은 각각 10% 남짓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도표로 보려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 대학의 약 40%에 해당하는 大學에서 독본과 작문의 교재를 분리하여 편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본·작문의 병행 교과 구성이나 작문 위주 독본 포용의 교과 구성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은 作文 教育이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거나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作文 教材가 敎養國語(독본) 教材 속에 포함되

<표 1> 독본, 작문 교재 분리 여부

구	분	국 · 공 립				사 립				전 체									
		종합대		단과대		교육대		소 계		종합대		단과대		신학대		소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분리 여부	분리	10	90.9	7	63.6	2	18.2	19	57.6	26	76.5	18	52.9	3	37.5	47	61.8	66	60.6
	비분리	1	9.1	4	36.4	9	81.8	14	42.4	8	23.5	16	47.1	5	62.5	29	38.2	43	39.4
	계	11	100	11	100	11	100	33	100	34	100	34	100	8	100	76	100	109	100
비분리 우	독본, 작문 병행			1	25.0	1	11.1	2	14.3	1	12.5	2	14.3			3	12.0	5	12.8
	교과 구성	독본 위주 작문 포용	1	100	2	50.0	8	88.9	11	78.6	7	87.5	8	57.1	3	100	18	72.0	29
교과 구성	기 타	독본 위주 작문 포용										4	28.6			4	16.0	4	10.3
		독본 위주 작문 포용			1	25.0			1	7.1								1	2.6
		계	1	100	4	100	9	100	14	100	8	100	14	100	3	100	25	100	39

어 있을 경우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作文의 교과 내용이 지나치게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경우와 그 반대로 作文의 교과 내용이 시간 수나 학점 수에 비해 과다하게 수록되어 있는 경우이다.

作文의 교과 내용이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예는 종합 J대학교와 종합 S대학교의 敎材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大學校의 敎養國語 敎材에는 作文에 관한 교과 내용은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國語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國語學에 관한 다음의 論文들만을 수록하고 있다.

〈J대학교〉

Ⅳ. 言語와 社會

1. 訓民正音略史 〈方鍾鉉〉
2. 말에의 사랑 〈崔鉉祐〉
3. 눈의 글과 귀의 글 〈鄭寅承〉
4. 國語文體의 時代的 考察 〈李崇寧〉
5. 한글과 國語 〈南廣祐〉
6. 言語의 리듬과 韻律 〈黃希榮〉
7. 國語에서의 成層現象과 그 止揚 〈柳穆相〉
8. 言語와 人間 〈金鍾垣〉

〈S대학교〉

1. 論說

- 國語의 形成 〈李基文〉
- 文學을 위하여 言語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金完鎭〉
- 言語와 哲學 〈李明賢〉

위 두 敎材의 경우 言語와 國語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도모할 수 있겠으나 學生들의 作文力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과제물이나 독후감 등의 방법으로 作文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그런 방법을 병행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실제 교과서에 교과목이 수록되어 있고, 그 교과목에 따라 지도하는 방법에는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지방 소재 국립 종합 J대학교의 敎材는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J大學校의 경우 作文이 敎養國語(독본) 敎材 속에 포함되어 있으나, 敎養國語 時間에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國語生活編에서,

- 國語의 形成 〈李基文〉
- 언어에 대한 이해 〈남기심〉
- 言語의 諸機能 〈金完鎭〉
- 東西南北과 바람 〈方鍾鉉〉
- 漢字問題의 對策과 展望 〈安秉禮〉

등을 수록하여 국어의 일반적 성격을 설명하고, 正確한 文章編에서 실제의 作文에 대한 것을 수록하고 있다. 그 내용을 큰 목차로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 正確한 文章

- I. 글과 文法
- II. 主語의 省略
- III. 主語와 叙述語의 呼應
- IV. 助辭 「이/가」와 「은/는」
- V. 文章의 接續
- VI. 文章의 構造的인 模糊性

- 論文의 註釋과 參考文獻
- 現行 國語 正書法의 實際

위의 敎材에서는 먼저 國語의 文章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성격들이 설명되고 난 뒤에 論文의 註釋方法과 國語 正書法이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文章의 作成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판 13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國語 文章의 일반적 성격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나아가서 文章과 文章의 연계와 단락, 몇 단락과 단락의 연계라는 텍스트화에 대한 것이 제외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시간과 학점 수의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으리라고 추측되기는 하나 作文敎育이라는 면에서 볼 때 교재의 빈약성이 지적될 수밖에 없다.

위의 예들과는 달리 作文 敎材가 敎養國語(독본) 敎材 속에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作文의 전 과정을 수용하고 있어 독립된 作文 敎材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경우도 있다. 즉 통합 교재이기는 하나 言語 및 國語에 대한 이해, 한 편의 글을 이루기 위한 어휘·문장·단락 등 言語의 계층적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한 作文의 절차 및 記述에 대한 作文의 전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통합 교재라는 제약 때문에 作文의 어느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예들의 교재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종합 I 대학교의 敎養國語 教材 속에 포함되어 있는 作文과 관련된 부분의 큰 목차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言語의 理解
 1. 言語의 諸機能 (金完鎭)
 2. 言語와 文學 (李熙昇)
 3. 한글과 國語 (南廣祐)
 4. 現代 正音法의 原理 (李基文)
 5. 訓民正音의 制字原理 (李應百)
- 文章作法 (I)
 1. 作文活動에 앞서
 2. 作文의 節次
 - (1) 主題設定
 - (2) 取材 및 그 整理
 - (3) 構想
 - (4) 記述
 3. 段落
 - (1) 段落이란
 - (2) 段落의 構造
 - (3) 段落의 連繫
- 文章作法 (II)
 1. 論文作成法
 - (1) 研究論文
 - (2) 試驗論文
 - (3) 試驗答案 및 레포트, 論文의 實例
 2. 實用文
 - (1) 書簡文
 - (2) 公用文

I 대학교의 教材는 먼저 言語 및 國語가 갖고 있는 一般的 性格을 설명하여 부분적이거나 국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文章作法 (I)에서는 주로 作文의 節次를 主題의 選擇과 資料들의 取材와 整理·構想 및 記述(說明·論證·描寫·叙事·推諷)로 說明하고, 단락의 구조와 단락의 연계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이

로 하여금 作文의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文章作法 (II)에서는 大學生들이 주로 작성해야만 하는 글의 형태인 論文 作成法과 實用文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 教材는 大學生들로 하여금 전공 학문 영역에서 대상으로 하는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 관찰·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실용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 편의 글을 작성하기 위해 제일 중요하게 전제하여야 하는 텍스트의 최소 구성 요소인 정확한 文章(sentence)의 作法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作文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단위는 文章이지만, 大學生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 정확한 文章의 作成이라는 면이라 생각할 때, 정확한 문장의 작성법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作文教育의 실효성을 그만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예와 유사하면서도 어느 정도 다른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S 대학교의 教材는 다음과 같이 짜여져 있다.

- 국어의 이해
 - 말에의 사랑 (崔鉉培)
 - 訓民正音 略史 (方鍾鉉)
 - 民族 및 文化와 言語社會 (李崇寧)
 - 國語의 歷史的 考察 (金亨奎)
 - 한글은 과연 科學的 文字인가 (許雄)
- 作文의 기초
 - 正確한 文章
 1. 글과 文法
 2. 主語의 省略
 3. 主語와 叙述語의 呼應
 4. 助語 「이/가」와 「은/는」
 5. 文章의 接續
 6. 文章의 構造의인 模糊性
 - 作文의 節次
 1. 主題의 設定
 2. 取材와 그 整理
 3. 構想
 4. 執筆

5. 推敲
作教의 記述

1. 說明
2. 論證
3. 描寫
4. 叙事

위의 教材도 먼저 國語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의 作文 教科인 '작문의 기초'에서 정확한 문장의 작성을 설명하고 난 뒤에 作文의 節次와 記述를 설명하고 있어 I大學의 教材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I大學의 教材에 비해 단락의 구조와 단락의 연계에 대한 것이 빠져 있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글이 갖고 있는 장르별 작법(특히 實用的인 글)에 대한 설명이 제외되고 있다. 즉 I大學校의 교재에 비해 정확한 文章의 作法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大學生들이 갖고 있는 올바른 文章의 구성 능력의 부족을 메워줄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教材의 경우 단락의 구조와 단락의 연계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은 작문의 단계적 기술이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통합 교재라는 제약 때문에 상호의 모든 절차에 대한 완벽한 기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作文의 記述(說明·論證·描寫·叙事)이라는 면보다는 作文의 節次와 관련된 실제적 과정인 文章→段落→텍스트라는 단계적 교육에 치중할 수 있는 교재가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教材와 관련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教授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즉 敎養國語에 배당된 학점 수나 시간 수에 비해 教材의 內容이 지나치게 많이 수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作文이 독립된 교과목이거나 독립된 시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양국어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앞서의 작문 교과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교수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극히 의심스럽다.

1986년도 전국 대학(교)의 敎養國語에 배정된 학점 및 시간 수는 2학점 2시간에서 8학점

9시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 110개 대학 중 4학점 4시간이 전체의 40.9%인 45개교, 3학점 3시간이 19.1%로 21개교, 6학점 6시간이 13.6%인 15개교, 3학점 4시간이 11.8%인 13개교로 전국 대학의 81.8%인 89개교가 3~4학점에 3~4시간을 敎養國語에 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작문 시간을 교양국어와 분리해서 교과를 운영하고 있는 大學은 전국 110개 대학(교)의 46.4%인 51개교에 불과하며,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교과를 운영하는 대학이 53.6%인 59개교에 달한다는 것이다. 물론 통합해서 교과를 운영하는 경우라 해도 作文은 결국 敎養國語의 일부인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총체적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면 작문 시간의 독립 운영에 비해 作文 敎育의 실효성은 오히려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문과 독본을 분리하지 않은 大學들이 취하고 있는 작문교육의 실태는 작문과 독본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총체적으로 교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문교육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앞서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大學에서 작문을 독본에 종속시키거나 과제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작문을 독본에 종속시킨 경우에도 그와 같은 학점과 시간 내에 교양국어 교재의 독본은 교수하고 또한 앞서의 작문 교과 내용을 교수할 수 있겠는지는 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까지 검토한 통합 교재에 비해 독립된 作文 教材들은 상당히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大學에서 敎養國語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소리가 폭 넓게 제기되고, 그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敎養國語에 대한 반성은 合理的이며 論理的인 思考의 형성, 비판적인 인간성의 함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作文 敎育의 필요성에 대한 認識을 심화시켰고, 따라서 作文 敎育의 강화를 꾀하는 大學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作文 教材의 개발을 촉구하여 온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敎養國語의 중심을

作文教育으로 전환하고, 作文教育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作文教材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던 국립 종합K대학교의 作文教材를 대표적으로 예시하기도 한다. 거의 모든 작문 교재들을 수합·검토한 위에 마련된 教材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K大學校의 作文教材는 「문장작법Ⅰ」과 「문장작법Ⅱ」로 나누어져 있다. 「문장작법Ⅰ」은 교양 필수로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교과목의 교재이고, 「문장작법Ⅱ」는 교양 선택으로 작문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고급 작문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교과목의 교재로 알려지고 있다. 「문장작법Ⅰ」의 큰 목차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 第一部

I. 正確한 글

1. 글과 文法
2. 올바른 單語
3. 基本文과 그 變形
4. 正確한 글
(附錄)

II. 作文의 節次

1. 主題의 設定
2. 取材와 그 整理
3. 構想
4. 執筆
5. 推敲

III. 段落의 構成

1. 段落의 意義
2. 段落의 構造
3. 段落의 展開와 連繫
(附錄) 作文의 記述樣式

IV. 論文 作成法

1. 論文이란 무엇인가
2. 論文 作成의 節次
3. 論文의 記述

위의 教材는 먼저 글이 지녀야 하는 규칙으로서의 文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作文의 가장 실질적인 단위인 올바른 單語의 선택과 국어 文章의 일반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때 국어의 기본 문형과 그 변형이 소개되고, 그러한

기본 문형을 바탕으로 문장의 확대를 설명하고 있어 國語의 統辭構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作文의 가장 기초 이면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文章의 작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중시하는 태도를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어서 作文의 節次에 대한 설명이 있고 段落의 構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作文의 記述이 아닌 論文 作成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집필 의도는 앞서 지적한 바 있는 作文의 단계적 교육이라는 즉 어휘→문장→단락→텍스트라는 단계적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집필하되, 大學生들의 필수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實用文 위주로 집필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第二部에서는 第一部에서 설명한 理論들을 실증할 수 있는 적절한 例들을 수록하여 이론과 실제 텍스트들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第三部에서는 作文과 관련된 理論的 說明에 대한 課題를 부과하여 學生들 스스로 作文의 단계적 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作文教育을 敎養國語라는 총체성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편집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편집 의도는 作文教育에 배정된 학점과 시간 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教材이면서도 學生들의 作文力을 높이기 위하여 大學生들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實用文 중심으로 구성된 教材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규범적 텍스트의 作成能力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규범적 텍스트의 작성 능력이 구비된 뒤에 아름다운 文章 혹은 藝術文 등 형태를 달리하는 작문의 작성 능력은 「문장작법Ⅱ」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 또한 앞서의 편집 의도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

이제까지 몇 가지 종류의 作文 教材들을 검토 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검토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교재들이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교양국어와 통합된 教材의 경우 작문 과정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차이점들은 쉽게 보완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보완은 作文이 아름다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규범적인 글이 우선적이라는 사실과 규범적인 글이란 문법적인 문장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結 語

이제 여기서 강조하여야 할 것은 作文教育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넓혀져야 한다는 점과 그러한 認識을 심화시키기 위한 作文 教材의

미비점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教材의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作文教育이란 지금의 교육 환경에선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作文教育이란 결국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것을 수정·보완해 주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大學 現實은 이러한 점들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

〈投 稿 案 內〉

「大學教育」 제32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 및 教授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교육 과정이나 교수·학습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教授談論 ③ 學科別 教育課題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4매(②는 15매 또는 23매)
3. 期 限—1988년 1월 20일
4. 稿 料—매당 2,500원 (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教育協議會 (T. 783-3891, 3067)
6. 附 記

-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